LOCAL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생협력 '맞손'

10개 기관 임원간담회…시정 공유·협력사업 등 협업
온누리상품권·지역상품권 이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

나주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최근 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공공기관이 상생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류 확대에 나선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임원 간담회를 갖고, 협업 강화, 지역 주요 시정 공유,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 지역과 공공기관이 상생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강상구 나주부시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정정보관리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까지 10개 기관의 임원·간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부기관 협조 요청사항 전달과 나주시 주요 시정 홍보, 협력사업 설명, 기관별 건의사항 수렴 등이 이뤄졌다.

나주문화재단도 참석해 뮤지컬 명성황후 갈라콘서트와 메세나(기업문화예술후원) 사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나주영산강축제, 국제농업박람회 등 주요 현안과 행사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활성화,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김호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활용 가능한 법인용 나주사랑상품권(카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혜숙 사학연금 경영관리본부장은 "직원 대상 지역상생 나들이 사업을 통해 지역 명소 방문과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연계하고 있다"며 "공단 독서문화라운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상구 나주부시장은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취약계층 기부, 수해 복구 등 지역과의 상생에 앞장서 준 공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에너지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RE100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광주~나주 광역철도 신설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 본선 진출작 195편 확정

여수시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상작 최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에는 지난해(1306편) 보다 약 80% 증가한 총 2341편의 국내·외 작품이 출품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한 195편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종 선정위원회의 개별·집합 심사를 통해 60편의 수상작이 가려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위원회는 웹콘텐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올해는 해외 웹페스트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해외 주요 인사들을 심사위원단으로 위촉해 글로벌 심사체계를 도입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 60편은 영화제 마지막 날인 다음달 12일 시상식에서 여수를 상징하는 특별 제작 트로피와 함께 총상금 20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함평, 로컬푸드 인증 상표 개발 연말까지 최종 상표명·디자인

함평군이 로컬푸드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체 인증 상표(BI) 개발에 본격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운영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로컬푸드 인증제 상표(BI)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품질과 위생 정보를 투명하게 담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전문가 컨설팅을 토대로 상표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로컬푸드에 신뢰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표(BI)에는 생산자, 농약잔류검사 결과 등 주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 군이 인증한 우수농산물이라는 점을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관계자 의견 수렴과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상표명과 디자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보성,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

연 최대 30억 지원…농수산 융합 인재 육성 거점 도약

보성군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돼, 연간 최대 3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보성군은 남해안 농수산 융합 인재 육성의 거점이자, 지방교육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교육혁신,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보성군을 비롯한 고흥·완도·진도 4개 군이 교육부 예비 시범지역 재평가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연간 최대 30억원을 특별교부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보성군의 교육 발전 전략은 △지역이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공교육 환경 개선 △지역 상생 글로컬 교육혁신 △지역자원 기반 정주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2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혁신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 산업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향후 보성군은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보성군이 남해안 농수산 융합 인재육성의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화순군은 10월 31일까지 전남대 의학과 84명을 대상으로 의료역량 지도 등 보건사업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사진은 최근 전남대 의대생들의 조평경로당 마을주치의 프로그램 현장실습 장면.

화순보건소, 의대생 보건사업 현장실습 추진

10월까지 마을주치의 프로그램 등 주민 만족 높아

화순군은 10월 31일까지 전남대 의학과 84명을 대상으로 의료역량 지도 등 보건사업 현장실습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현장실습은 화순군 특성에 따른 보건사업을 알리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현장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실습 동안 11개 조로 나눠 경로당 또는 거동 불편 가정을 찾아 마을주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가구를 찾아가 건강 상태 체크 등의 의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양면 조평경로당 마을주민들은 "학생들을 포함해 평소보다 많은 보건 인력이 마을주치의 진료에 나서자, 초음파 치료기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의대생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이번 계기로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훌륭한 의료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목포, 상반기 김 수출액 8126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6%↑…전국 지자체 1위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이 8126만달러를 기록,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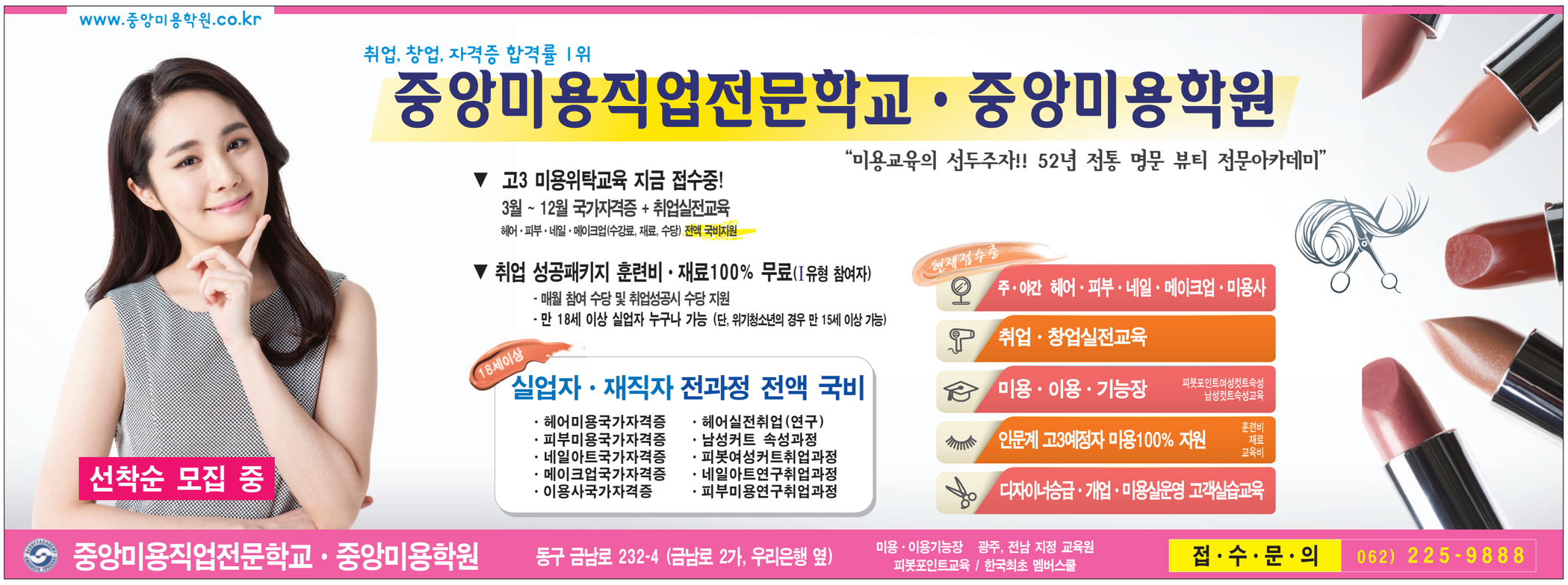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67만달러) 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목포시 전체 수출액은 9216만달러로, 이 중 김 수출이 88%를 차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김 수출액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는 김 산업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마른김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마른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와 마른김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목포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